

한중(韓中) 문화 이해를 위한 중국 역사문화도시 답사 방안

소주(蘇州)와 상해(上海) 답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pe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Chinese Historical and Cultural City Exploration Program for Global Education:
Focusing on Suzhou and Shanghai

최홍열*, 이래호**, 유춘동***

국문요약 이 글은 국내 학생들이 중국의 대표 역사문화도시인 소주(蘇州, 쑤저우)와 상해(上海, 상하이)를 답사했던 과정과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해외 답사는 비교과 과목의 하나로, 해당 국가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과목이다. 한국 학생들의 다양한 중국 답사 프로그램 참여는 중국의 문화를 이해함은 물론, 우리의 현재를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두 지역을 대상지로 삼은 것은 소주는 중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의 명승지로, 상해는 중국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자는 조선시대부터 지식인들에게 관심의 대상지였고, 후자는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위치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지역의 답사는 학생들에게 문화교육적인 관점에서 중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양국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한중 관계는 최근에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문제로 인하여, 두 나라 모두 공동 연구나 교류 등이 위축되어 있다. 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운영되었던 답사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상황 등을 살펴보았다.

핵심어 한중 관계, 한중 문화 이해, 소주(蘇州), 상해(上海), 해외 답사, 글로벌/글로벌 교육

- 차례**
1. 서론
 2. 중국의 역사문화도시 소주와 상해의 면모
 3. 중국의 역사문화도시 소주와 상해의 답사 설계
및 운영
 4. 마무리와 과제

1. 서론

최근의 한중 관계는 여러 대내외적인 문제로 인하여, 중국 내에서는 한국학 관련 연구와 교육이 위축되었고, 국내에서는 중국과의 문화교류와 학술교류 등이 예전과 달라진 상황이다. 두 나라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다시 양국의 교류 촉진은 물론, 이와 관련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진행할 방안이 필요하다.¹

이 글은 대학 교육의 주요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의 하

*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 전공 교수(제1저자)
**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 전공 부교수(공동저자)
***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 전공 부교수(교신저자)

1 이육연, 「한중 수교 30년 문화갈등: 양상과 전개 과정, 극복 과제」, 『국제지역연구』 31(2),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2022, 181~209쪽; 여신/오소정, 「한국 20대 청년의 대 중국 정서 연구」, 『한중언어문화연구』 69, 한국중국어문화학회, 2023, 303~326쪽.

나인 해외 답사 프로그램 운영에서, 중국의 대표 역사문화 도시를 선정하여, 한국인 학생들이 답사했던 방법과 관련 내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외 답사는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비교과 교육 과정의 하나로, 문화 교육적인 관점에서 해당 목적 국가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²

지금까지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뒤로, 국내에서 진행된 두 나라의 교육이나 교류에 대한 연구는 중국에서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국내에 입국한 중국 유학생의 학습 개선 방안에 집중되어 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의 관심을 중국에 대한 관심의 향상, 한중(韓中) 양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글로벌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방안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2024년 1월에 강원도에 소재한 K대학교의 국어국문 학과는 중국의 소주[蘇州, 쑤저우]와 상해[上海, 상하이] 지역의 주요 문화유산을 답사하였다. 답사는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 인원은 총 22명이었다. 이 과정에서 소주대학교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았다.³

해당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중국에서 두 도시가 지닌 위상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지니고 있는 두 도시의 중요도와 상징성 때문이다. 소주는 중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로서 다양한 세계문화유산이 곳곳에 존재하는 곳이고, 상해는 중국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지역으로서 일찍부터 개방이 되어 도심 곳곳에 조계지(租界地)를 비롯한 주요 근대문화유산 등을 볼 수 있는 곳이다.⁴ 이처럼 중국의 대표 도시인 소주와 상해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전자는 조선시대부터 문인사대부들이 가보고 싶었던 동경의 지역으로 소주와 관련된 다양한 문학 유산이 남아있고, 상해는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면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해외 답사가 재개되고 있다. 한국의 주요 동반자인 중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를 답사함으로써, 중국의 문화를 이해함과 동시에, 우리의 현재의 문화와 발전의 양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중국을 대표하는 소주와 상해의 답사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관광 체험이 아니라, 문화교육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지역-공간-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답사를 통해서 한중 관계의 정체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양국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차례로 기술하기로 한다.

2. 중국의 역사문화도시 소주와 상해의 면모

중국의 대표 역사문화도시인 소주와 상해를 답사하는 목적은 두 지역이 지닌 특성을 문화-교육적인 관점에서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기 위해서이다. 두 지역은 다음과 같은 타 지역과 다른 역사-문화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먼저 소주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소주는 중국 화동지역의 특대 도시 중 하나로, 장쑤성(江蘇省)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중국에서 공포한 24개 역사문화도시 중의 하나이다.⁵ ‘운하, 호수, 정원’으로 대표되는 소주는 중국의 3000년 역사를 지닌 고도(古都)의 하나이다. 소주가 역사적으로 부각된 것은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오나라의 수도가 되면서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중국 수나라 때에는 이곳에 대운하(大運河)가 완공되면서 강남(江南)에서 생산된 쌀의 수송 거점 도시가 되었고, 이때 소주는 행정과 무역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소주의 역사와 전통은 현재로 이어져 중국을 대표하는 역

2 리처드 필립스, 제니퍼 존스, 박경환 외 옮김, 『지리 답사란 무엇인가』, 푸른길, 2015, 3~4쪽.

3 중국 소주대학교 한국어과의 양언 교수님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4 이한나, 『중국도시정보 시리즈: 장쑤성 소주시』,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5 임원현, 「중국 소주의 관광자원」, 『경주연구』 9, 경주발전연구원, 2000.

사도시, 무역 도시가 되었다.⁶

소주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유산으로 먼저 정원(庭園)을 들 수 있다. 소주는 중국 내에서 ‘정원의 도시[園林之城]’로 명성이 높은 곳이다. 소주의 정원이 만들어졌던 시기는 기원전 6세기부터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곳에 본격적으로 정원이 만들어진 것은 명청(明清) 시대라고 한다. 특히 명청 시대에 도시가 번성하면서, 도성 내에만 200개의 정원이 조성되었다고 전한다. 현재는 대략 50여 개의 정원이 남아 있다. 이 중에서 소주에 있는 줄정원(拙政園)과 유원(留園)은 중국의 4대 정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진 1) 소주 도심을 관통하는 운하(運河)

줄정원은 명나라 때 어사대부를 역임했던 왕헌신(王獻臣)이 지은 것으로, 전체 면적은 대략 5만1570m²이다. 중국의 대표소설 『홍루몽(紅樓夢)』의 배경인 대관원의 모델이 바로 이곳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유원은 명나라 때 관료를 지냈던 서시태(徐時泰)가 지은 것으로, 전체 면적은 대략 3만m²이다.⁷ 이곳에는 700m에 이르는 복도식 통로가 있다. 바로 이 통로에 중국의 역대 주요 문인들의 필적이 있는 회랑(回廊)이 있어 유명하다. 두 정원은 소주만이 아니라 중국을 대표하는 정원으로,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소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화자원은 ‘물’로 형성된

운하유적지이다. 소주는 도시 전체가 거미줄처럼 운하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운하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평강로(平江路, 평장루), 산당가(山塘街, 산탕지에)이다. 이곳은 해당 지역을 배를 타거나 걸어 다니며 구경할 수 있다.

평강로는 수나라 때부터 조성된 운하거리로, 거리 양쪽에는 과거 소주에 있었던 고택(古宅)과 상점이 늘어서 있다. 그리고 산당가는 옛날에 소주를 방문했던 외지(外地) 상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곳에도 역시 고택이 자리 잡고 있다. 소주에서는 이 두 곳을 ‘역사문화거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 있다. 이밖에도 소주에는 중국 문인 장계(張繼)의 시(詩) ‘풍교야박(楓橋夜泊)’에 읊었던 한산사(寒山寺), 오나라의 왕 합려의 묘를 지키는 호랑이의 전설이 전하는 호구공원(虎丘公園)과 호구탑(虎丘塔), 운하마을 주장(周庄, 저우장) 등과 같은 주요 역사문화유적지가 있다.

이처럼 소주는 중국의 유구한 역사를 보여주는 지역이다. 특히 이곳은 사람이 물과 어우러져 사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문화도시이다. 운하를 중심으로 형성된 각종 문화유산은 K대학이 위치한 춘천시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춘천은 ‘호반의 도시’라고 부르지만 사람이 물과 한데 어우러져 사는 환경이 소주와 큰 차이가 있다. ‘물의 도시’를 춘천의 특색으로 추진하려는 춘천시에, 소주의 운하와 각종 물과 관련된 문화자원은, 차후 ‘물’의 정비, 경관 활용의 측면에서 유용하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주의 역사도시의 면모, 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의 면모는 한국 학생들에게 중국문화의 정수를 소개하고 중국문화를 다른 시각에서 생각하고 체험할 수 있는 최적지이자 학습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해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해는 중국의 제2의 도시라고 평가받는 중국의 대표적인 도시이다. 이곳은 중국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동시에 지니

6 김상욱, 『중국지역문화이야기(1)』, 부크크, 2021.

7 유네스코와 유산. 소주 전통 정원. <https://heritage.unesco.or.kr>



사진2. 상해의 야경(夜景)

고 있으며, 동양과 서양의 문화/문명이 공존하는 지역이다.⁸ 상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원(元)나라 때로, 소주의 화정현을 분할하여 상해현을 두게 되면서부터이다. 상해는 19세기까지 자그만 항구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해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튼 것은 1842년 영국이 일으킨 아편전쟁이었다.⁹ 이 전쟁으로 상해는 강제로 개방되었고,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제국주의 국가는 상해의 와이탄[外灘] 지역에 조계지(租界地)를 설치하여, 식민지 경영을 위한 은행과 같은 각종 근대 자본주의 시설, 서양의 첨단 문화가 유입되는 ‘근대 도시’, ‘모던(Modern)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¹⁰

상해는 도시 중심부를 황푸강[黃浦江]이 관통하고 있다. 이 강을 중심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푸둥[浦東] 지역과 푸시[浦西] 지역으로 부르고 있다. 푸시 지역에는 영국과 미국의 공동 조계지였던 와이탄[外灘], 멀지 않은 곳에 프랑스의 조계지였던 화이하이루[淮海路]가 있다. 이곳에는 이러한 이유로 지금도 1800년대 건립된 서양의 근대식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다. 반면에 푸둥 지역은 상해의 반환이후에 중국의 발전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동방명주탑[東方明珠塔]’을 비롯한 각종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있다. 상해는 이처럼 중국의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여 중국의 과거

와 현재를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지역이다.

한편, 상해는 중국 역사에서 혁명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신해혁명(辛亥革命)은 상해를 거점으로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상해에는 중국의 혁명가들을 비롯하여, 약소 민족국가의 망명가들이 활동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상해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

홍구 공원으로 알려진 노신 공원은 윤봉길 의사가 일본의 전승 기념식에 폭탄을 투척한 역사적인 공간이었다. 그리고 상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거류민단, 의열단 등의 단체들은 ‘대한독립운동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서 상해에는 독립운동가만이 아니라 다양한 한국인들이 거주하게 되었고,¹¹ 상해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문학 작품이 출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에게 상해는 외국이 아닌, 우리에게 친숙한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상해를 주목하고 답사의 주 대상지로 삼은 이유는 일본 식민지를 경험한 우리에게 상해는 중국의 그 어느 도시보다도 친숙하다는 점 때문이다. 상해 지역은 외세에 의해 강제로 개방되었다는 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지휘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존재했고 현재 그 청사가 현존한다는 점, 식민 지배의 어두운 역사를 벗어나 세계적인 도시로 탈바꿈했다는 점, 과거 식민 지배의 문화유산을 근대 문화유산으로 탈바꿈하여 활용한다는 점, 이 모든 것이 우리와 유사하다. 따라서 상해는 중국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 발전된 최첨단의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만이 아니라, 우리 근현대의 어두운 역사를 환기시키고 이를 극복하는 의지를 배울 수 있는 한국에 최적화 된 해외 답사지역이자 학습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 답사는 지식으로만 접하던 지역이나 대상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체험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

8 상하이 문화관광 행정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meet-in-shanghai.net>

9 이희수, 『이희수 교수의 세계문화기행』, 일빛, 1999, 251~254쪽.

10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도시, 상해. 에듀넷티 <https://www.edunet.net>

1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편,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19.

고, 해외 진출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정작 한국인 학생들의 중국에 대한 이해는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중국의 대표 역사문화도시를 답사함으로써, 한중 문화의 이해도를 높이고, 내외국인 학생 교류 프로그램 및 글로벌 교육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관심은 중국학이나 중국문학, 중국어학 전공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인문학 전공 분야의 학생들에게 그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중국의 역사문화도시 소주와 상해의 답사 설계 및 운영

해외 답사가 단순한 관광 체험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시작 단계부터 철저한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 학생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진행했다.

먼저, 본 답사는 중국의 대표 역사문화도시인 소주와 상해를 답사 지역으로 선정하여, 3박 4일의 일정으로,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합하여 총 20명이 참여하여 운영했다. 두 지역은 국문학과 관련된 여러 문헌에서 늘 접하거나 등장한다. 하지만 이곳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곳을 방문한 학생은 드문 편이다. 소주와 상해 두 지역의 중요한 문화자원을 접함으로써, 국문학의 이해 및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원대학교와 교류가 있는 소주대학교의 협력을 통해서 본 프로그램 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답사 운영을 위한 학생들의 대상지에 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 답사에서 제일 비중을 두어야 할 부분은 교수자 중심의 답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해당 지역에 관심

사항을 선정하고 이를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본 답사는 소주와 상해 두 지역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답사 참여 학생들에게, 소주와 상해 두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 소주와 상해에서의 주요 역사문화자원 등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소주와 상해의 개관 및 역사문화도시로서의 면모’였다.

셋째, 답사의 실제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이다. 답사 지역은 소주와 상해 대상지를 이미 선정한 상태지만, 참여 학생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답사에 ‘국어국문학’라는 참여 학생의 소속감 및 정체성, 전공과목의 특성의 반영, 예를 들자면 고전문학에 나타난 소주의 이미지, 근현대문학에 나타난 상해의 이미지, 상해 디아스포라 문학 등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 등, 그리고 답사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 한중 관계의 면모, 중국과 한국 문화의 전반적인 특성 등을 이해하는 일에 답사의 프로그램 기획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답사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별로 대학원생과 학부생을 나누고, 지역에 따른 선호도 지역을 답사하며 그 결과를 집단으로 논의하고 해결하는 PBL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함께 참여시켜 한중 문화의 이해도를 높이는 ‘멘토링(mentoring)’ 제도도 함께 운영했다.

넷째, 답사의 마무리 작업이다. 답사의 완성은 국내로 귀국한 뒤에 조별로 답사했던 답사 지역과 관련된 사항 등을 정리하는 작업이다. 답사의 실제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에서 제시했던 ‘국어국문학’라는 참여 학생의 소속감 및 정체성, 전공과목의 특성의 반영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에 의거하여 답사 대상지에 확인한 사항 등을 기행문 또는 심화 연구 논문 등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운영 과정과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3.1. 답사 운영을 위한 사전 작업

해외 답사는 대상지가 익숙한 국내가 아닌 곳에서 진

행되기 때문에, 교통-숙박-일정의 측면에서 다양한 제약이 있고, 특히 사전에 예측이 어려운 돌발 상황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답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준비와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답사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해외 답사는 유명 관광지를 구경하는 것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K대학교의 국어국문학과는 총 20명이 답사에 참여했다. 답사 참여는 지원자를 선발하는 방식을 택했다. 경쟁이 치열하여 선발이 필요했고, '소주와 상해의 역사문화 자원과 답사의 필요성'을 묻는 구술 면접을 진행하여 참여자를 선발했다. 선발된 20명의 인원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5명씩 4개조로 나누었고, 출국에 앞서 소주와 상해 지역에 대한 역사 문화 조사, 한국의 역사와 문화와의 연관성, 중국 내에서 해당 지역이 지닌 특색 등에 대하여 면밀한 사전 조사 작업을 진행하도록 했다.¹²

중국으로의 답사는 국내 재학생만으로는 사실상 진행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교의 외국인 유학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국인 유학생 3명을 본 답사에 참여시켰다. 이렇게 편성된 조를 중심으로, 출국에 앞서 다양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3.2. 답사 운영을 위한 대상지의 주요 역사문화유적의 확인 및 조사 작업

해외 답사 지역을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급증하는 중국인 유학생들만 한국의 역사문화를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국내 학생들도 중국의 역사문화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대상지를 소주와 상해로 선택한 이유는 두 지역이 현재 중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의 명승지이자 다양한 세계문화유산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두 지역은 조선시대에는 문인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지였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성지(聖地)였던 특

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뒤로, 대부분의 중국 답사는 중국에 있는 고구려와 발해 유적 답사, 신라와 백제 유적 답사, 백두산 및 연변 지역의 답사, 중국으로의 연행(燕行) 답사, 공자(孔子) 유적지 답사, 돈황 답사 등에 집중되어 왔다. 이번 답사의 목적은 이러한 기존의 답사가 한국 고대사에 집중되어 있다면, 본 답사는 현재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도시, 중국과 한국의 공통점, 예를 들어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같은 특수한 역사적 사실, 근현대사의 분기점과 극복과정, 현재 주목받고 있는 양국의 문화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는 지역을 발굴하고 이를 답사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다.

따라서 4개조는 출국에 앞서, 소주와 상해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역사, 문화, 인물, 관광 자원, 미래문화유산 등을 조사했고, 이때 기존에 간행된 단행본, 인터넷 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대상 지역을 조사하도록 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두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사전 교육이 이루어진 뒤에 해당 지역의 답사를 통하여, 학생들이 직접 책으로만 배웠던 지역을 실제 답사함으로써 그곳에서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3.3. 답사의 진행과 운영

답사는 3박 4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답사는 사전 준비 단계를 거쳐, 조성된 각 팀 별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특히 각 팀은 한국인 학생과 중국인 유학생들의 협력을 통해서, 국내 학생들이 책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내용, 중국 문화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도모하도록 했다.

소주 답사의 진행과 운영의 초점은 '운하, 호수, 정원'으로 대표되는 소주의 문화와 도시가 지닌 위상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답사는 먼저, 소주의 대표 정원(庭園)인 줄정원(拙政園)을 방문하여 중국 정원의 특징을 이해하고 우리의

12 답사에 운영에 필요한 방법론은 임철일의 논의를 참조하였다. 임철일, 『교수설계 이론과 모형』, 교육과학사, 2012.

정원과 견주어 보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인공운하 마을인 산탕지에[山塘街]와 평장로[平江路]를 방문하여 운하에 둘러싸인 ‘물의 도시’로서의 소주의 위상, ‘도시의 수로의 활용과 관광 자원’ 등을 살펴보는 작업에 주력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상해는 중국의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여 중국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지역이라는 지역이 지닌 특징, 그리고 일제강점기 우리 ‘독립운동의 성지(聖地)’라는 특징에 주목하여 답사를 진행했다. 상해의 경우 와이탄[外灘]과 화이하이루[淮海路]를 중심으로 이곳에 있는 다양한 근대 건축물, 근대건축물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는 작업에 주력했다. 그리고 과거 이곳이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조계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견주어 볼 수 있는 국내의 인천, 목포 등과 견주어 해당 지역을 답사하는 작업에 주력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다양한 근대문화유산, 근대문화건축유산 등을 국내와 달리 어떻게 보존하고 발전시켜 왔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에 주력하도록 했다.

이렇게 각 조로 진행된 실제 답사는 다음 단계인 ‘현장 답사와 마무리’를 위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이때 대다수는 탐방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PBL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3.4. 답사의 마무리 작업

답사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조별로 탐방 과제를 설정하고 답사를 통해서 이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과제를 작성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3박 4일 동안 진행되었던 본 답사는 소주와 상해의 역사/문화/역사문화유적 확인, 소주와 상해의 실제 답사, 소주와 상해의 답사 마무리로 정리된다.

이번 답사의 핵심은 중국의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은 고대사(古代史)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근대사/근대문화, 그리고 현재의 중국문화의 기반, 현재의 중국문화

의 특성 등을 파악하는데 초점이 있었다. 특히 두 곳은 현재 중국에서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동시에, 이를 활용한 각종 문화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향후에 이곳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문화유산의 파급 효과 또한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답사는 소주와 상해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역사, 문화, 인물, 관광 자원, 미래문화유산 등을 답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답사를 통해서, 우리 문화의 보존과 이해를 위해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중국의 대표 도시인 소주와 상해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전자는 조선시대부터 문인사대부들이 가보고 싶었던 동경의 지역으로 소주와 관련된 다양한 문학 유산이 남아있고, 상해는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해는 한국 근대 문학의 주요 사건 사고의 배경이 되었던 중요한 곳이다. 1920-30년대 많은 조선의 문인들이 상해를 찾아오고 이를 문학 작품에 반영하였다. 답사의 마무리인 조별로 ‘보고서’는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별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답사의 운영 결과, 참여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 조사, 답사 참여 이전과 이후에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 답사 후의 결과물을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대다수의 한국인 학생들은 답사에 참여하기 전에, 소주와 상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두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이해가 없었다. 그리고 두 지역을 답사한다고 했을 때, 막연히 과거 중국의 역사문화 유적지를 답사할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본 답사를 통해서 소주와 상해에 대한 이해도, 특히 조별 활동을 통해 두 지역의 관심 지역을 선정하고 실제 지역을 답사하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 더 나아가 중국문화와 한국문화 전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답사 후에 시행되었던 재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보면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중국의 과거 문화가 아닌, 생생한 중국의 현재 문화, 최첨단 중국의 문화를 볼 수 있는 도시의 면모,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과거 역사와 연계된 지역이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소주와 상해 두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답사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한편 답사의 운영은 여러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수업 진행을 위한 예산 배정 부분이다. 이번에 시행된 답사는 대학 링크사업단의 지원과 학과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였다. 이러한 지원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답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시급한 과제이다. 예산 배정과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답사 프로그램의 정교화 작업과 확장이 필요하다. 이번 답사에서는 소주와 상해를 답사했는데, 여건이 된다면 소주-상해-항주 세 지역을 묶어서 답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세 지역은 하나로 묶어서 답사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답사를 통해서 한국인 학생들은 중국의 발전된 모습, 그리고 현재 중국의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 실태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두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우리 문화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코로나 사태가 해결된 지금, 미래 한중 양국의 발전을 위해서 해당 답사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프로그램 보완이 시급한 과제이다.

4. 마무리와 과제

앞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도록 한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대표 역사문화도시인 소주와 상해를 대상으로, 강원도에 소재한 K대학교의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이 답사했던 방법과 관련 내용 등을 살펴본 것이다. 이 논의를 통해서 해외 답사는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뒤로, 국내에서 진행된 두 나라의 교육이나 교류에 대한 연구에서 앞으로 한국 학생들의 중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도 강조하였다.

소주와 상해 지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소주는 중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로서 다양한 세계문화유산이 곳곳에 존재하는 곳이고, 상해는 중국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지역으로서 일찍부터 개방이 되어 도심 곳곳에 조계지(租界地)를 비롯한 주요 근대문화유산 등을 볼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선시대부터 문인사대부들이 가보고 싶었던 동경의 지역으로 소주와 관련된 다양한 문학 유산이 남아있고, 상해는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고 답사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답사에서는 소주와 상해와 관련된 고전문학 관련 내용, 한국 근대문학 관련 내용, 한국 근대사에서 소주와 상해가 지닌 위상 등을 연계시키지 못했다. 차후 답사 프로그램의 운영과 활성화 방안에서는 이 내용을 추가하여 운영하려 한다. 이와 관련된 것들은 차후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경리/윤지영, 「중국 소주 평강로 도시역사문화거리 보존 및 재생사업 평가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1(5), 한국콘텐츠학회, 2021.
- 김상욱, 『중국지역문화이야기(1)』, 부크크, 2021.
- 김해인, 『상하이, 시간을 걷는 여행: 상하이 역사, 예술, 문화를 찾아가는 특별한 인문 여행서』, 이담북스, 2019.
- 리처드 필립스, 제니퍼 존스, 박경환 외 옮김, 『지리답사란 무엇인가』, 푸른길, 2015.
- 유춘동,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외국인 유학생의 방과후 수업의 운용 사례」, 『교양학 연구』 11, 중앙대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20.
- 윤혜지, 「항주 서호와 지역문학 교육」, 『인간과 자연』 4(2), 한국 인간과 자연학회, 2023.
- 이육연, 「한중 수교 30년 문화갈등: 양상과 전개 과정, 극복 과제」, 『국제. 지역연구』 31(2),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2022.
- 이하나, 『중국도시정보시리즈: 장쑤성 소주시』,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 이희수, 『이희수 교수의 세계문화기행』, 일빛, 1999.
- 이희정,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 역사문화 교육방안 연구: 대구 원도심의 문화유산 답사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64, 한중인문학회, 2019.
- 임철일, 『교수설계 이론과 모형』, 교육과학사, 2012.
- 최해연, 「20세기 초 조선인의 중국 여행기록을 통해 본 근대적 명승(名勝)의 변용: 소주와 항주를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1(48),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6.
- 하상일, 『상하이 노스텔지어: 모던의 흔적을 찾아가는 인문 여행』, 이담북스, 2016.
- 한지은, 『도시와 장소기억: 근대역사경관의 노스텔지어를 이용한 상하이의 도심재생』,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편,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19.

2. 기타 자료

- 상하이 문화관광 행정부 홈페이지. <https://www.meet-in-shanghai.net>
-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https://heritage.unesco.or.kr>
- 에듀넷티. <https://www.edunet.net>

Abstract

A Study on the Ope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Chinese Historical and Cultural City Exploration Program for Global Education : Focusing on Suzhou and Shanghai

Choi, Hong-Yeal · Lee, Rae-Ho · Yoo, Choon-Dong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In the recent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related research and education have been reduced in both China and Korea due to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s. Therefor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both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seek a new direction. The way to present in this article is to propose a plan to explore China's representative historical and cultural cities, Suzhou [蘇 Province] and Shanghai. Exploration is one of the important comparisons and curriculums in students' education, and it is a subject that directly experiences and promotes understanding of the culture of the country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education. Through Korean students' exploration of China, they can not only understand Chinese culture, but also understand our appearance from a new perspective.

Suzhou is a representative historical and cultural landmark of China, and Shanghai is a symbol of China's modernization. However, in both regions, Suzhou has been the target site of Tokyo since the Joseon Dynasty, and Shanghai has a symbolic meaning where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Japanese colonial era is located. For this reason, two regions were selected, and above all, overseas field trips are not just a tourism experience, but an important subject to enhance students' understanding of region, space, and culture from a cultural education perspective through field trips. In this article, the overall operation situation as an exploration program operated for this purpose, teaching-learning model-complementary points, and future development plans were presented.

Keywords Korea-China relations, Suzhou, Shanghai, exploration, non-curricular curriculum, cultural education, global/glocal education

이 논문은 2024년 5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6월 15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